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은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급작스러운 육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변화와 인지적인 변화를 겪는 기간으로서 그 특징은 이러한 도전을 직면하여 극복하고 자기정체성과 자립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Erikson이 정체성 발달이론을 제시한 이후 청소년기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체성을 고정된 상태로 개념화하여 측정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개인의 정태적인 심리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Erickson의 정체성 발달이론이 가진 원래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시점에서 정체성 상태를 측정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역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안적 개념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erzonsky, 1993; Kang, 2000).

청소년 초기에는 집단에의 소속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개인적인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므로 사춘기부터 16,7세까지의 청소년 초기에는 집단정체감 확립의 욕구가 가장 크고, 이 욕구가 좌절되어 소속감이 결여될 경우 소외감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소외감은 정체성 형성 과정과 사회화과정의 교란된 결과 야기된 심리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는 정체

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외감이 야기될 위험이 큰 시기이다(Calabrese, 1987; Kang, 2000). 소외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청소년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우울 반응을 보이며,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비행을 선택하기도 한다(Kinkel, Bailey & Josef, 1989; Young, 1989). 국내 연구에서도 실제로 청소년의 소외감은 여러 유형의 문제행동 및 심리적 부적응과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Kim, 1990; Lee & Lee, 2002; Ok, 19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의 과정 중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기는 그 과정에서 혼란과 좌절이 발생되어 소외감이 야기될 가능성이 큰 시기이므로 소외감은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대안적 개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 적응의 문제는 심리적·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므로 청소년의 소외감을 다체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체계적 접근방법은 청소년들의 행동을 “청소년과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복합적인 체계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사회생태학적 이론 틀이다(Worley, 1997).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를 가족, 친구집단, 학교의 3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고, 위험요소들과 보호요소들이 이들 각 환경영역과 개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즉 청소년의 경우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 광범위한 주변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Lee, 2001). 따라서 청소년의 가족환경 요인과 학교 경험 및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 심리사회적

주요어 : 소외감

1)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조교수

투고일: 2003년 6월 26일 심사완료일: 2003년 11월 1일

요인이 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들은 부모의 반응적이고 요구적인 양육태도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와 긴밀한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Kang, 2000; Jackson, Henriksen, & Foshee, 1998), 가족의 지지와 응집력과 같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도 청소년의 소외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2000; Lee, 2001). 또한 청소년의 소외감은 학교애착과 교우 상호작용의 결여와 같은 부정적인 학교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학업성취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ung, 1997; Lee, 2001; Moyer & Motta, 1982). 이 외에도 최근 자기통제나 사회기술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여러 정신발달에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이 주로 학교로부터 학생소외만을 다루고 있거나(Choi, 1987; Jung, 1997; Ok, 1991), 소외감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Kim, 1990; Kim, 1994; Lee & Lee, 2002)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괄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근거로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자기통제, 사회기술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그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예방하고 중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 대상자의 소외감과 심리사회적 변수들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를 검증한다.
- 대상자의 소외감과 심리사회적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표집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의 비율과 계열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남학교 1개, 여학교 1개, 남녀공학 1개로 각각 3학급씩 총 9학급, 실업계 고등학교는 남녀공학 2개교로 각각 5학급씩 총 10학급을 임의표집하였다. 회수된 566부중 응답이 부실기재된 자료 6부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총 550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 소외감

Mau(1992)가 개발한 SAS(Student Alienation Scale)와 Kang(2000)의 소외감 도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이 많이 경험하는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의 4개 하위유형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하부유형별 문항수는 각각 7문항으로 총 28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소외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 부모의 양육태도

Jackson, Henriksen, & Foshee (1998)가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행동을 측정하도록 개발한 API (Authoritative parenting index)로 측정하였다. API는 부모의 온정, 수용성, 관심, 참견 정도를 측정하는 반응성 9문항과 부모의 감시, 주장적 통제, 감독 정도를 측정하는 요구성 7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견 항목은 역산하게 된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성과 요구성이 높은 권위적인 부모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반응성은 .66, 요구성은 .81로 전체 도구의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 가족응집력

Olsen 등(1985)이 개발한 가족 적응력·결속력 평가도구(FACES)중에서 Kim(1989)가 변안한 결속력에 관한 10문항을 선정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 학교애착

기존 선행연구(Park, 1998; Yoo, 1994)의 학교에 대한 태도 문항중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애착과 관련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1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수업 및 기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Park(1998)의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문항 중 실제 학교 성적과 성적에 대한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등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5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4점 척도이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 교우관계

Yoo(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적응 검사 도구중 교우관계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친구와 관계가 좋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Kim(199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로 척도를 재구성한 Nam(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 사회기술

Inderbitzen & Foster(1992)가 개발한 TISS(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각각 20문항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두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회기술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회기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먼저 해당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학급에 들어가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집단 면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각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 소외감과 심리사회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1학년이 158명(28.7%), 2학년이 392명(71.3%)이었고, 학교계열은 인문계가 260명(47.3%), 실업계가 290명(52.7%)이었으며, 남학생이 274명(49.8%), 여학생이 276명(50.2%)이었다. 양친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은 458명(83.3%), 편부모 상태는 72명(13.1%), 계부모 상태는 20명(3.6%)이었으며,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상류층 62명(11.3%), 중류층 312명(56.7%), 중하류층 137명(24.9%), 하류층 39명(7.1%)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제상태($F=6.87$, $p=.000$)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하류층과 하류층이 중상류층에 비해 소외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The degree of Alienation on General Characteristics (N = 550)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	Mean(SD)	t(F)	p value
Grade	1	158(28.7)	2.16(0.40)	1.25	.211
	2	392(71.3)	2.11(0.43)		
School types	academic	260(47.3)	2.12(0.42)	-0.01	.990
	vocational	290(52.7)	2.12(0.43)		
Gender	male	274(49.8)	2.14(0.40)	0.71	.476
	female	276(50.2)	2.11(0.45)		
Parental types	both-parents	458(83.3)	2.11(0.43)	1.35	.260
	single-parent	72(13.1)	2.20(0.45)		
	step-parents	20(3.6)	2.12(0.27)		
	upper middle	62(11.3)	1.98(0.40)		
Financial state	middle	312(56.7)	2.10(0.40)	6.87	.000+
	lower middle	137(24.9)	2.19(0.45)		
	lower	39(7.1)	2.33(0.47)		

+ $p<.05$ by Duncan test

소외감과 심리사회적 변수들의 정도

대상자가 지각한 소외감은 평균 2.12로 보통 이하였고, 하위 유형별로는 무의미가 평균 2.26으로 가장 높았고, 무력감이 2.11, 사회적 고립이 2.08, 규범상실이 2.06 순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중에서 반응성은 평균 2.75, 가족의 응집력은 평균 3.10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요구성은 평균 1.87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애착은 평균 2.38, 학업성취도는 2.61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교우관계는 3.59로 대체로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평균 3.19, 사회기술은 평균 4.19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소외감과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소외감은 반응적 양육태도($r=-.32$), 가족응집력($r=-.33$), 학교

애착($r=-.51$), 학업성취도($r=-.34$), 교우관계($r=-.38$), 자기통제력($r=-.43$), 사회기술($r=-.3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반응성,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학업성취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부정적이며 자기통제력과 사회기술이 낮을수록 소외감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고등학생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등학생 소외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애착으로 전체 변량의 26%를 설명하였다. 학교애착, 자기통제, 교우관계, 가족응집력, 부모의 요구성, 학업성취도 등의 변수가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가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score of research variables (N=550)

Variables	Mean(S D)	Range
• Responsive Parenting type	2.75(0.51)	1 ~ 4
• Demanding Parenting type	1.87(0.54)	1 ~ 4
• Family Cohesion	3.10(0.72)	1 ~ 5
• School Attachment	2.38(0.52)	1 ~ 4
• Academic Performance	2.61(0.66)	1 ~ 4
• Peer Relationship	3.59(0.64)	1 ~ 5
• Self Control	3.19(0.45)	1 ~ 5
• Social Skill	4.19(0.54)	1 ~ 6
• Alienation	2.12(0.45)	1 ~ 4
Powerlessness	2.11(0.50)	
Meaninglessness	2.26(0.68)	
Normlessness	2.06(0.54)	
Social Isolation	2.08(0.52)	

<Table 4> Predictive variables on Alien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N = 540 : listwise deletion)

Variables	β	adjusted R ²	F	p
School Attachment	-.27	.26	189.56	.000
Self Control	-.21	.32	126.21	.000
Peer Relationship	-.20	.36	99.82	.000
Family Cohesion	-.16	.38	81.43	.000
Demanding Parenting type	.11	.39	68.25	.000
Academic Performance	-.12	.40	59.74	.000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Major Variables

(N = 550)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1 Responsive Parenting type								
X2 Demanding Parenting type	.10 (.017)							
X3 Family Cohesion	.57 (.000)	.18 (.000)						
X4 School Attachment	.24 (.000)	.04 (.354)	.26 (.000)					
X5 Academic Performance	.22 (.000)	.04 (.308)	.16 (.000)	.36 (.000)				
X6 Peer Relationship	.24 (.000)	.14 (.001)	.24 (.000)	.38 (.000)	.15 (.000)			
X7 Self Control	.26 (.000)	-.00 (.946)	.23 (.000)	.39 (.000)	.32 (.000)	.15 (.000)		
X8 Social Skill	.33 (.000)	.07 (.095)	.24 (.000)	.34 (.000)	.18 (.000)	.40 (.000)	.36 (.000)	
X9 Alienation	-.32 (.000)	.04 (.309)	-.33 (.000)	-.51 (.000)	-.34 (.000)	-.38 (.000)	-.43 (.000)	-.33 (.000)

논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중하류층과 하류층이 중상류층에 비해 소외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외감과 경제상태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Jun, 1986; Maeng, 1991)들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므로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소외감을 조기에 확인하고 개인적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과 같은 중재를 실시함으로써 가정과 학교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이 지각한 전반적 소외감의 정도는 평균 2.12 (1~4점)로 보통 이하이고, 하위 유형별로는 무의미가 평균 2.26으로 가장 높았고, 무력감 2.11, 사회적 고립 2.08, 규범상실 2.06 순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소외감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ang(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소외감 정도가 보통 이하이고, 규범상실 점수가 가장 높아 고등학생과 조금 다른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미는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적 일들의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고 느끼는 현상인데,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이 현재의 학업적 성취와 미래 직업활동간의 단절을 인식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대학생에 비해 무의미나 무력감을 더욱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적이나 입시위주가 아닌 성취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교로부터의 소외감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학교애착, 자기통제, 교우관계, 가족응집력, 부모의 요구성, 학업성취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고등학생들은 학교애착과 학업성취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부정적이며 가족응집력이 낮고, 부모의 요구성이 높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소외감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학교애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활동 참여도와 소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Moyer & Motta, 198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외감을 조사한 Ok(1991)의 연구에서도 소외감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은 학생의 수업 참여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학생 소외감의 43.5%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학업성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도가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외감과 학업성취도의 부적 상관성을 밝힌 연구(Choi, 1987)나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중·상위권 학생들보다 소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Jung, 1997;

Lee, 200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소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가족, 교사, 친구)중 고등학생의 소외감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은 친구 지지이며, 친구가 없다고 지각한 학생이 친구가 있다고 지각한 학생보다 소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Lee, 2001)와 유사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학교애착, 학업성취도, 교우관계와 같은 학교생활 관련 변수들은 청소년의 소외감 발생에 중요한 영향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학교환경은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정서적 안녕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소외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측면의 개선 및 개혁과 더불어 소외감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주관적, 심리적 측면의 소외감 극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학교나 지역사회 보건간호사가 학교애착을 증진시키고,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및 또래 지지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학생 소외감을 예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개인의 특성중에서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소외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결국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통제가 낮을 것이고 이는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자기통제와 청소년의 소외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지만 내외통제성의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학생소외감척도(SAS)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Abdallah (1997)의 연구에서 학생소외감 척도와 통제성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개인적 효능 및 대인통제와 학생소외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성공적 학업성취, 정서, 도덕성 등을 비롯한 여러 정신발달에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 자기통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소외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부모의 감시, 주장적 통제, 감독 정도를 의미하는 요구적 양육태도와 소외감과 관계에서 부모의 요구성이 높을수록 소외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요구적이고 반응적인 권위적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소외감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Jackson, Henriksen, & Foshee, 1998)와는 상반되는 결과로써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 위주의 가정교육과 지나친 교육열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그러한 부모의 기대로 인해 자녀들의 심리적 부담도 커졌다고 할 수 있

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몰입과 과보호는 자녀가 심리·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할 이 단계의 발달과업을 저해할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요구성을 과잉통제로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요구성 수준을 세분하여 요구성과 과잉통제의 한계를 확인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동시에 조사하여 부모의 요구성이 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더불어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소외감과의 관계도 확인되고 있다. 가족체계유형을 분리가족, 친밀가족, 밀착가족으로 분류하여 초등학생의 소외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Kim(2000)의 연구에서는 분리가족과 기능가족이 소외감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의 분리성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소외감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Yang(1999)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관심도가 높다고 지각하고, 가정분위기가 민주적, 개방적일수록 소외감을 낮게 경험하였고, Lee(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지와 고등학생의 소외감은 역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소외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므로 청소년의 소외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지지, 수용 및 감독과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교육하는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가족환경, 학교생활 및 자기통제와 같은 개인적 특성은 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시체계를 가족, 친구집단과 학교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들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이 청소년의 소외감을 설명하는 유용한 시각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다체계적 관점에서 소외감의 원인을 파악하여 중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체계적 관점을 토대로,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요인을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자기통제, 사회기술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의 소외감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G시에 있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200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설문지 조사방법을 시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소외감 정도는 평균 2.12로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감은 가정의 경제상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하류층과 하류층이 중상류층에 비해 소외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6.87, p=.000$).
- 소외감은 반응적 양육태도($r=-.32$), 가족응집력($r=-.33$), 학교애착($r=-.51$), 학업성취도($r=-.34$), 교우관계($r=-.38$), 자기통제력($r=-.43$), 사회기술($r=-.3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반응성,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학업성취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부정적이며 자기통제력과 사회기술이 낮을수록 소외감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애착으로 전체 변량의 26%를 설명하였다. 학교애착, 자기통제, 교우관계, 가족응집력, 부모의 요구성, 학업성취도 등의 변수가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가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애착, 자기통제, 교우관계, 가족응집력, 부모의 요구성, 학업성취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시체계를 가족, 친구집단과 학교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들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이 청소년의 소외감을 설명하는 유용한 시각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소외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다체계적 관점에서 소외감의 원인을 파악하여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bdallah, T.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alestinian Student Alienation Scale. *Adolescence*, 32(126), 366-371.
- Berzonsky, M. D. (1993). A constructivist view of identity development: people as postpositivist self-theorists. In J. Kroger(Eds.), *Discussions on ego identity* (pp169-20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alabrese, R. L. (1987). *Adolescence : A Growth period*

- conducive to alienation. *Adolescence*, 22(88), 928-938.
- Choi, S. Y. (1987). *The relationships between alien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al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Inderbitzen & Foster(1992).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 Assess*, 4(4), 451-459.
- Jackson, C., Henriksen, L., & Foshee, V. A. (1998). The Authoritative Parenting Index: Predicting Health Risk Behavi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Health Educ Behav*, 25(3), 319-337.
- Jun, Y. O. (1986) *Some Relationships between Alienation and Personality Trait on the MMPI*.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Jung, Y. S. (1997). *A study of alien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ungju.
- Kang, W.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father's/mother's values, Father/Mother-student emotional intimacy & father's/mother's over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Alie- 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S. (1998). *Model development of affecting factors on health behavior and juvenile delinquenc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J. H. (2000). *A Study on Alien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environmental variables and Family System*. master's thesis, The Yeungnam University of Korea, Daegu.
- Kim, K. S. (1990).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S. M. (1994). *The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physical, mental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s*. Mater's thesis, The Chosun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Kim, Y. H. (1989).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nkel, R. J., Bailey, C. W., & Josef, N. C., (1989). Correlate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lienation, drugs and social background. *J Alcohol Drug Educ*, 34(3), 85-96.
- Lee, E. J., & Lee, E. S. (2002).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Fund Nurs*, 9(1), 56-65.
- Lee, E.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Social Supports i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0(4), 464-475.
- Maeng, Y. I. (1991).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personality of the secondary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The Hong-Ik University of Korea, Seoul.
- Mau, R. Y. (1992). The validity and devolution a concept : student alienation. *Adolescence*, 27(107), 731-742.
- Moyer, T. R., & Motta, R. W. (1982). Alienat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 Psychol*, 112(1), 21-28.
- Nam, H. M. (1999).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Olse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 (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Newbury Park: Sage.
- Park, H. S. (1998).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Sankey, M., & Huon, G. F. (1999). Investigating the role of alienation in a multicomponent model of juvenile delinquency. *J Adolesc*, 22, 95-107.
- Worley, N. K. (1997). *Mental Health Nursing in the Community*. Mosby.
- Yang, I. Y. (1999). *The Relation of the Students' Alienation to Their Home Background*. master's thesis,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inju.
- Yoo, Y. H. (1994).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School Adaptation, Anx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Young, T. J. (1989). Alienation and Self-reported Deviance, *Psychol Rep*, 65, 727-730.

The Influencing Factors on Alien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Lee, Eun-Sook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alien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Method:**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550 students of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in G cit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scores of alienation among students in financially lower middle class and lower clas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upper middle class students, resulting in significant differences($F=6.87$, $p=.00$). A sense of alienation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cores of responding parenting style($r=-.32$), family cohesion($r=-.33$), school attachment($r=-.51$), academic performance($r=-.34$), peer relationships($r=-.38$), self-control($r=-.43$), and social skills($r=-.33$).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lien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was school attachment and the variance explained was 26%. A combination of school attachment, self control, peer relationships, family cohesion, demanding parenting style, and academic performance account for 40% of the variance in alien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chool attachment, self control, peer relationships, family cohesion, demanding parenting style, and academic performance a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alien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nursing strategy is needed to manage these revealed factors.

Key words : Alien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Sook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19, Okgwamyon, Kogseong, Chunnam 516-911, Korea

Tel: +82-61-360-5335 Fax: +82-61-360-5331 E-mail: eslee@mail.chunnam-c.ac.kr